



# 미국 드라마 속 아시아인 고정관념 고찰 -“Grey Anatomy”의 Cristina Yang 의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English Discourse Analysis」과 「영어데이터분석기초」 강의페어링  
영어영문학과, 이지현, 201721601. 이진희, 이해경, 오하영 교수님 지도

## 목적

아시아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을 매체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드라마 “Grey’s Anatomy” 의 Cristina Yang을 통해 아시아인의 고정관념을 살펴본다.

## ‘English Discourse Analysis’ 에서의 강의페어링

**Sapir-Whorf Hypothesis** : 언어는 인간의 사고나 사유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담화 분석** : 담화 분석은 담화 상황과 사용되는 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발화를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담화 분석을 통해 크리스티나와 그의 주변인들의 담화를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한다.

## 고정 관념 강화

### 사회성

# 요리를 못하는 친구 ‘이지’를 도와주는 애인 ‘버크’를 보고, 크리스티나는 결국 자리를 비운다. 이후 버크가 대화를 시도하는 상황

(S2E09: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B: 친절하게 굴었어.

C: (미소 지으며) 응, 알고 있어.

B: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안하는 편이네. 그리고 알기 어려운 사람이야.

C: 맞아.

B: 우리 엄마는 앨라배마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

C: 오후에 이물질 제거술을 했어. 환자가 치골을 삼켜서.

제 3자 입장인 이지는 크리스티나를 알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는 감정을 숨긴 채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연인 관계인 ‘메러디스’와 ‘데릭’사이에서도 발생한다. 비슷한 상황인데도 크리스티나에게 유독 이를 문제삼고 ‘알기 어려운 사람’ 이라고 규정한다.

### 워커 홀릭

#입원한 상태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환자를 돌보러 간다.

(S2E04: 믿고 싶지 않은 현실)

# I: 의사들도 재밌게 놀 수 있는걸 행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제 잘난 맛에 사는 일 중독자는 아니잖아.

C: 우린 일 중독자야.

(S1E05: 신나게 춤춰봐)

### 남녀 관계

크리스티나는 자신이 버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지 못한다. 모든 솔직하고 당당한 크리스티나가 남녀 관계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S3E25: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나?)

## 분석 결과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기존 매체에서 드러난 고정관념이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특정 상황에서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아시아인에게는 그것이 아시아인만의 특징인 것처럼 규정화하고 과도하게 부각시킨다. 반면, 크리스티나를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다. ‘아시아인들은 ~ ’ 과 같은 일반화에서 벗어나, 아시아인을 각 개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매체에서 인종에 관한 편견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시청자들은 그대로 수용하고 이는 결국 인종 차별적 인식으로 자리 잡는다. 본 연구를 통해 평등한 시각에서 바라본 아시아인 캐릭터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영어데이터분석기초’ 에서의 강의페어링

**프로그래밍 언어 R**을 이용하여 “Grey’s Anatomy”의 대본을 크롤링한다. 수집한 파일에서 캐릭터 이름과 대사를 나누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는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한다. 그런 다음, 크리스티나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로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한다.

Robot Stereotype  
Workaholic  
Twisted Sister Genius Self Esteem  
Emotionles  
Social Ability Relationship

## 고정 관념 완화

### 모녀 관계

# 크리스티나와 엄마 ‘헬렌’이 말다툼하는 상황  
(S2E04: 믿고 싶지 않은 현실)

C: 20분이면 돼. 20분만 조용히 해줘.

H: 내가 키운 딸은 엄마의 도움을 감사히 여길 거야.

C: 엄마가 키운 딸은 엄마가 나갔으면 좋겠대.

(.....)

H: (우는 딸을 보고)조만간 터질 줄 알았지. 시간 문제였어.

C: 가만 안 둘거야. 나가!

크리스티나는 엄마에게 무조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다소 거칠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아시아권 모녀의 소통이 일방적이라는 고정관념이 완화된 양상을 보인다.

### 서양인과 동양인의 우정

과거 서양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동양인을 조롱하거나 대조적으로 그렸다. 반면 ‘메러디스(서양인)’와 크리스티나는 서로 “너는 내 사람이야.”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별한 우정이다.

(S8E19: 지원 체제)

M: 크리스티나 좀 나아졌어?

C: 응 괜찮아.

M: 크리스티나, 말하기 싫은 건 아는데 난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네가 끊고 싶을 때까지 그대로 있을게. 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 자부심

# 크리스티나가 과장님에게 잘보이려 ‘오웬’에게 과장님과 친하냐고 묻는 상황

(S7E17: 우리의 방식)

O: 내가 힘써 줄 순 없지만, 네가 예쁜 건 인정하지.

C: 난 똑똑한 여자니까, 내 머리를 칭찬하라고요!

#크리스티나가 내기에서 이겼을 때 “나처럼 되고 싶지? 그리고 싶겠지만 너넨 절대 안돼.”라며 한껏 자부심 높은 모습을 보인다.

(S2E14: 달콤한 거짓말)